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한국축구사 새로 쓰는 태극소녀들

FIFA대회 첫 우승 넘본다

U17 월드컵 스페인 꺾고 26일 아침 日과 결승전

'슈퍼 골잡이' 여민지 5경기서 8골 '득점여왕' 예약

'17세 태극소녀'들이 감동의 역전 드라마를 앞세워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대회 챔피언 북한을 꺾고 결승에 오른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으로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최덕주 감독이 이끄는 U-17 여자 대표팀은 22일(한국시간) 새벽 트리니다드 토바고 코우바의 아토 볼던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FIFA U-17 여자월드컵 준결승에서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0-1로 뒤지던 전반 25분 여민지(함안대산고)의 동점골과 전반 39분 여민지의 패스를 받은 주수진(현대정과고)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태극소녀들은 역대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진출해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은 1983년 멕시코 20세 이하(U-20) 월드컵(당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올해 독일에서 열린 U-20 여자월드컵에 이어 이번이 통산 네 번째지만 결승까지 오른 것은 U-17 대표팀이 역대 처음이다.

게다가 U-17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준우승을 확보해 지난달 U-20 여자 대표팀이 거뒀던 3위를 뛰어넘어 역대 FIFA 주관대회 최고 성적도 예약했다.

특히 이날 동점골을 뽑아낸 '슈퍼 골잡이' 여민지는 조별리그와 8강 및 4강까지 5경기를 뛰면서 8골(3도움)을 터트리며 득점 단독 1위를 유지해 득점왕 자리를 예약했다.

한국은 오는 26일 오전 7시 포트오브스페인의 해슬리 크로퍼드 스타디움에서 북한을 2-1로 물리친 일본과 대망의 우승컵을 놓고 한일전을 치르게 됐다.

거세게 한국의 수비진을 두드린 스페인이 선제골을 뽑아냈다. 전반 23분 푸테야스의 크로스를 받은 아만다 삼페드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쇄도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25분 미드필드 지역에서 상대의 패스를 끊은 김나리가 단독 질주하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여민지가 골 지역 정면에서 다이빙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다. 여민지의 대회 8호골.

기세가 오른 한국은 전반 39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가로챈 여민지가 스루패스한 볼을 주수진이 잡아 수비수 2명과 골키퍼까지 여유 있게 돌파한 뒤 역전골을 넣으면서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다.

태극소녀들은 후반 막판 스페인의 집중 공세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첫 결승 진출을 일궜다.

한편 이어 열린 준결승 경기에서는 대회 첫 4강에 오른 일본이 후반 25분 터진 요코야마 쿠미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지난대회 우승팀 북한을 2-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북한은 후반 14분 김금정이 골키퍼 몸을 맞고 나온 공을 잡아 오른발슛을 터트리며 선제골을 장식했다. 하지만 후반 24분과 25분 연속해서 두 골을 허용하며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북한은 오는 26일 오전 4시 스페인과 3-4위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태극기 휘날리며… 한국대표팀이 22일(한국시간)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FIFA U-17 여자월드컵 준결승에서 스페인을 2-1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폭발

시즌 첫 골 2도움 활약

맨유 칼링컵 16강 견인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컵대회(칼링컵)에서 시즌 첫 골을 터트렸다.

박지성은 23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스컨소프의 글랜퍼드 파크에서 열린 챔피언십(2부 리그) 소속 스컨소프 유나이티드와 2010-2011 칼링컵 3라운드(32강)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3-1로 앞선 후반 9분 추가골을 뽑는 등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맨유의 5-2 승리에 큰 힘을 보탰다. 팀은 16강에 올랐다.

박지성의 올 시즌 첫 골과 첫 공격포인트. 박지성이 공식 경기에서 한꺼번에 세 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2005년 여름 맨유 입단 후 처음이다.

선제골은 스컨소프가 터트렸다. 전반 19분 조시 라이트가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맨유 골문을 갈랐지만 전반 23분 맨유 깁슨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동점골을 넣어 바로 균형을 되찾았다.

맨유는 전반 36분 박지성의 도움으로 스몰링이 골 맛을 보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웨스 브라운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공을 찔러주자 박지성이 따라가 낮게 크로스를 올렸고 스몰링이 달려들며 오른발을 갖다대 골문을 열었다.

2-1로 앞선 채 전반을 마친 맨유는 후반 들어 소나기골로 점수 차를 벌려나갔다. 후반 4분 마케다의 패스를 받아 오언이 추가골을 뽑았고, 5분 뒤 박지성까지 골 잔치에 가세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도움

올 시즌 첫 풀타임 활약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의 미드필더 기성용(21)이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면서 도움까지 기록했다.

기성용은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인버네스와 2010-2011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컵대회 3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셀틱의 6-0 대승에 힘을 보탰다. 특히 2-0으로 앞선 전반 37분에는 그리스 국가대표 공격수 요르고스 사마라스의 추가골을 도왔다. 하프라인 오른쪽에서 공을 받은 기성용이 페널티지역 안으로 파고든 사마라스에게 길게 크로스를 올려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사마라스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차 넣었다.

기성용의 올 시즌 첫 어시스트이자 시즌 두 번째 공격포인트다. /연합뉴스

방송 3사 스포츠 공동중계 합의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2012년 올림픽과 2014년 월드컵 축구 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공동 중계키로 합의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는 20일 지상파 3사가 추후 방송법이 정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을 각사 평등의 원칙에 따라 순차 편성하고 이들 경기의 중계방송권 획득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3사는 이와 함께 방송협회 내에 '스포중계방송 발전협의회'를 설치, 2012년 올림픽, 2014년 월드컵, 2010년 11월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대회를 순차적으로 중계방송하고 비용도 균등 부담하는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SBS는 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S는 아시안컵축구대회, 축구 A 매치,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의 중계권을 갖고 있다. 또 MBC는 광저우와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권을 보유한 상황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을 SBS가 단독 중계한 것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육상 허연정 800m 또 한국新

올들어 세번째 … AG 금 기대

여자 육상 800m 간판 허연정(30·고양시청)이 두 달만에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허연정이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열린 2010 슈퍼 트랙앤필드 대회 여자 800m에서 2분04초12의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6위로 골인했다고 밝혔다. 허연정은 지난 7월14일 호크랜 디스턴스 5차 레이스에서 2분04초78을 뛰어 여자 800m 한국기록을 23년 만에 새로 작성했고 사흘 뒤 6차 레이스에서 다시 한국기록을 0.37초 줄여 2분04초41까지 한국기록을 단축했다. 그러다 두 달 만에 다시 기록을 0.29초 앞당겨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연합뉴스